

m-커버스토리

국회 문턱 넘어선 교사들... '교권보호정책' 직접 손본다

교육현장 새바람

교육계 인사 12명 국회 입성
교육 현장 여건개선 등 기대
"학습권 후속·보완 입법 필요"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왼쪽)과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이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들은 모두 초등학교 평교사 출신이다. /뉴시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과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던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이 당선됐다. 이들은 모두 초등학교 평교사 출신으로, 그간 교사 출신 의원을 찾아 보기 힘들던 국회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가 초등교사 출신 후보를 영입한 배경은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며 '교권'이 화두가 됐기 때문이다.

◆ '교사 출신' 의원 기대감

정성국 당선인(부산 부산진갑)은 지난 2022년 '75년만에 첫 초등교사 교총 회장'으로 당선된 이력도 있다. 당시에도 유·초·중등 현장을 지켜온 유일한 후보로 나서서 ▲방과후학교 및 돌봄 지자체 이관 ▲교권침해 및 약성민원 즉각 현장출동 ▲교권 관련 법률비용 지원 등 교권 보호와 교사 정체성을 강조하고 나섰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교사 정체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국 당선인은 "대한민국 교육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장기플랜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내며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초등교사 출신으로 강원교사노조위원장을 지낸 백승아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교육계에서도 두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 교권보호정책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백 당선인은 국회 입성 후 제1호 법안으로 '서이초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서이초 특별법' 주요 내용은 ▲교사의 본질 업무 법제화 ▲학생 분리지도 법제화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 법제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다.

'교사 출신' 의원에 대한 교육계 현장 기대감은 크다. 교원단체는 입법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교총은 11일 논평을 내고 "서울 서이초 사건을 겪으며 교권 보호 입법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학교 현장과 교원을 대변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정성국 전 교총회장이 국회에 입성한 데 대해 축하하고 큰 역할을 기대한다"라며 "교육전문가인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교사 소신 있게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

하기 위해 누구보다 활발한 입법 활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도 ▲김준혁 한신대 교수(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김대식 동서대 교수(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강경숙 원광대 특수교육과 교수(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더불어민주당 연합 비례대표) ▲김민진 경희대 교수(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등 교육계 인사 총 12명이 국회에 입성한다.

◆ 교육활동 관련 입법·정책 탄력

이번 총선에서는 초·중등 교육과 달리 고등교육(대학) 관련 공약은 빈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는 등 경쟁 체제 자체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기대를 모은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원한다는 계획

이다.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내용 등 일부 복지성 정책만을 제시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양당의 교육 공약에 지방대학 재정확보 방안으로 제시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입시경쟁 교육 해소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는 평이다. 지방권 한 대학 총장을 역임한 인사는 "10년 넘게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과 고물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특히 지방권 대학은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법제화해 안정적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개선할 입법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여남실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입법과 정책이 속속 마련돼 올해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 정착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사가 소신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은 누가 당선되고 낙선되더라도 존폐가 갈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ihj@metroseoul.co.kr

>> 1면 '여소야대 교육계...서 계속

與野 '돌봄정책' 공감대 국민의힘 "사교육비 완화" 민주당 "금융교육 강화"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 요강' 확정을 앞두고, 이전까지 정부와 의료계에서 협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학부모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늘봄학교'에 힘을 썼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1학기 운영 규모를 확대하면서 학교 현장에 부담이 커져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돌봄 인력과 공간을 확보하는 '운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에서 지출한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 서면서 총선에서는 '늘봄' 이외에도 사교육 잡기 위한 정책안이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영유아 무상보육을 내년 부터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태권도·줄넘기, 미술·피아노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에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모 안심 초등 학교 통학차량,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금융·경제교육 연수기회도 확대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체계적 금융교육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이현진 기자

美·유럽 등 세계시장 안착... '뷰티테크' 사업영역 확장

K뷰티, 브랜드 지형 변화

③ 글로벌 진출

남미·인도 등 다양한 지역 진출 소비자 접점 확대... 매출 급증

K뷰티를 이끄는 차세대 브랜드들은 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한국IR협회 기업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은 오는 2027년까지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부상과 유통 채널의 다양화 등을 바탕으로 연평균 4~5%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일 뷰티 업계에 따르면 비건 뷰티 브랜드 달바는 2023년 연간 매출 2000억원을 돌파했다. 이중 해외 매출액은 446억원이다. 전체 매출이 지난 2022년 대비 38% 증가함과 동시에 해외 매출액이 134% 급증해 달바는 뷰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달바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2023년 매출은 지난 2022년 대비 180% 증가해

100억대에 이른다.

비건 미스트 세럼은 일본 온라인 몰 쿠팡과 라쿠텐에서 미스트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달바 톤업 선크림도 쿠팡 선크림 부문과 베이스 메이크업 부문에서 1위에 올라 브랜드 영향력을 입증했다.

달바는 2023년 미국에서도 100억원대 판매고를 올렸다. 이는 지난 2022년 대비 230% 성장한 규모다. 미국 아마존에서 미스트 부문 1위에 진입하면서 실적 견인이 이뤄졌다는 것이 달바 측의 설명이다.

북미 시장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달바는 올해 1분기에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으로 진출했다. 오는 2분기에는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시장과 인도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연간 매출 2000억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고운세상코스메틱도 올해 K뷰티 격전지로 미국 시장을 꼽고 있다. 고운세상코스메틱의 2023년 연결 기준 매출



에이피알은 지난 3월 14일부터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호 21 스프링 스트리트에서 브랜드 팝업 행사를 열었다. /에이피알

은 1984억원이다.

이와 함께 고운세상코스메틱은 브랜드 다변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고운세상코스메틱은 최근 더마 브랜드 '닥터지'와 기능성 클린뷰티 브랜드 '비비드로우'에 이어 색조 브랜드로 '힐어스'를 선보였다. 오는 2030년까지 10개

브랜드, 100개국 진출을 이루겠다는 중장기 목표에 따른 행보다.

앞서 미국 시장 안착을 보이며 본격적인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선 브랜드도 있다.

자연주의 기능성 화장품 마녀공장은 올해 7월 미국 전역의 코스트코 오프라

인 매장 300개에 입점할 계획이다. 마녀공장 2023년 매출액은 1050억원으로 이중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7%다. 특히 아마존, 소피, 라자다, 쿠팡, 라쿠텐 등 주요 글로벌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뷰티테크'도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K뷰티를 이끄는 신성장동력이다.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의 경우 2023년 국내외 시장에서 105만 대의 뷰티 디바이스를 판매했다.

2022년 판매량으로 60만대를 기록한 데 비해 1년 사이 약 7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판매량 상승에 따라 뷰티 디바이스 매출 또한 사상 처음으로 2100억원을 넘겼다. 이는 에이피알 전체 매출의 41%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 에이피알은 미국 시장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부스터힐러'를 중심으로 뷰티 디바이스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해외 진출 흐름이 지속된다면 인지도 제고나 제품군 확장만큼 해외 현지 소비자들과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나 유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브랜드마다 차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